

## ‘학습윤리’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중요도-실행도 차이 분석을 중심으로

이성흠(李聖欽)\*

윤초희(尹蕉熙)\*\*

최상봉(崔相鳳)\*\*\*

### 논문 요약

지식기반사회의 성숙과 함께 학문공동체에서는 연구윤리에 대한 담론이 활발하다. 연구윤리는 책임 있는 연구수행을 위해 준수해야 할 윤리원칙 또는 행동양식이다. 이 연구는 학습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윤리 확립을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학습윤리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을 조사·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대상은 서울특별시 K대학교 공과대학 재학생 183(남: 142, 여: 41)명이며, 설문지는 ‘학습윤리’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은 보고서 작성 항목에서 대리작성, 아이디어 도용, 과제물 구매 등에서는 준수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지만, 중복제출과 짜깁기에서는 중요성 인식의 정도가 낮았다. 학습윤리에 대한 실행도(준수정도)에서는 대리작성, 중복제출, 과제물 구매 등에서 높게(즉,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짜깁기와 표절에서는 실행도가 낮았다. 중요도와 실행도 점수 차이는 중복제출, 짜깁기, 과제물 구매, 표절, 대리작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학습윤리 위반에 대한 이유는 ‘더 좋은 학점에 대한 욕심’, ‘시간의 부족’, ‘자료에 대한 쉬운 접근성’이었다. 둘째, 기타 학업수행(출석, 협동과제, 시험 등) 측면에서 학습윤리 중요도는 대리시험, 시험부정행위, 무임승차에서는 높았지만 대리출석과 무단조퇴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이들 항목에 대한 실행도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다. 중요도-실행도 점수 차이는 대리출석, 무단조퇴, 대리시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셋째, 학습윤리의 중요도와 실행도 차이 분석 결과, 중요도는 높으나 실행도가 낮은 약점 항목으로 집중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표절’, ‘위조’, ‘변조’로 나타났다. 중요도와 실행도가 모두 높은 강점 특성으로는 ‘과제물 구매’, ‘대리작성’, ‘아이디어 도용’과 ‘대리시험’, ‘무임승차’, ‘시험부정 행위’가 포함되었다. 중요도와 실행도의 인식 수준이 모두 낮은 항목은 ‘짜깁기’를 포함하여 ‘대리출석’, ‘무단조퇴’ 항목이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 교신저자, 동국대학교(서울)

\*\*\* Spalding University

다. 중요도는 낮지만 실행도는 비교적 높은 투자 및 집중도 조절이 요구되는 불필요한 강점 항목에는 ‘중복제출’이 포함되었다.

주요어 : 학습윤리, 대학생의 인식, 중요도-실행도 분석, 표절

## I. 서론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성숙과 함께, 국내·외의 학문공동체에서는 학문적 정직성과 연구윤리와 관련된 담론(談論)이 활발하다. 이와 같은 논의는 그 동안의 학습과 연구관행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여 학습과 연구의 정직성, 투명성, 책임성 등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국제적 수준의 학습 및 연구윤리 제도 확립을 위하여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김성수, 2008; 하병학, 2009; 황성근, 2008; Bruwelheide, 2010; Lipson, 2004, 2008). 연구윤리는 연구자가 책임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윤리원칙 또는 행동양식을 말하는 것으로, 연구자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연구윤리의 실천으로부터 이탈하지 않도록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과학기술부(2007)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르면, 연구부정 행위의 범위는 연구내용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으로 규정된다.

연구윤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인재, 2007, 2008). 첫째, 과학연구의 과정에서 ‘정직하게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충실한 연구를 수행했는가, 즉 의도적인 속임수나 부주의, 자기기만 등으로 과학연구의 객관성을 해치지 않았는가’ 하는 것과 관련된다. 여기서는 날조(fabrication), 변조(falsification), 표절(plagiarism) 등의 연구부정 행위가 가장 큰 핵심쟁점이다. 둘째, 연구결과의 출판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저자 표시를 허용하고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저자의 순서를 정하는 등 연구 공로 배분이 합당했는가’와 관련된 내용이다. 셋째, 실험실 또는 연구과정에서 권위나 차별은 없었는가, 즉 ‘지도교수와 대학원생의 관계 혹은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의 관계가 민주적인가, 혹은 여성 및 소수자를 차별하지 않았는가’ 등과 관련된 내용이다. 넷째, 연구과정에서 과학자 또는 연구자가 사회적 책무성을 다했는가, 즉 연구의 내용이 공정성에 위배되지 않았는가, 공공자금을 이용한 연구가 공정성을 담보했는가 등과 관련된다. 다섯째, 특정 연구대상이나 연구방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성 등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러한 연구윤리에 대한 위반 행위, 즉 연구부정 행위는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 등 거의 모든 학문분야에서 발생하는 국제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가장 자주 언급되는 문제는 표절이다. 여기서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나 연구내용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학문의 정직성과 관련된 ‘표절’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글쓰기의 정직성에 위배되는 “표절(剽竊, plagiarism)은 표적(剽賊)이라고도 하며, 다른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용하여 사용하면서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네이버 백과사전, 2011)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표절은 다른 사람이 쓴 문학작품이나 학술논문 또는 기타 각종 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베끼거나 아니면 관념을 모방하면서, 마치 자신의 독창적인 산물인 것처럼 공표하는 행위”(위키백과, 2011)를 가리킨다. 표절은 흔히 저작권 침해와 혼동되는 경우가 많지만, 양자는 맥락과 지향이 서로 다르다. 표절은 주로 학술이나 예술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윤리와 관련되는 반면에 저작권 침해는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한 법률적 문제이다. 표절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자신의 것으로 훔친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훔내 내면서 자기 나름대로 재창조한 모방과는 구별된다. 패러디(parody)도 다른 사람의 저작을 빌린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원전을 밝히고 그것을 풍자적이고 해학적으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표절과 구별되며, 예술분야에서 다른 작가나 감독의 업적과 재능에 대하여 존경의 뜻을 담아 특정한 장면이나 대사를 모방하는 오마주(homage)도 표절과 구별된다(네이버 백과사전, 2011).

특히 최근 10여 년간 대학사회에서 학술논문의 표절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제 우리 대학도 ‘학문적 정직성(academic honesty)/학문적 성실성(academic integrity)’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Lipson, 2004, 2008). 이러한 경향은 연구자의 학술활동과 논문 저술 과정에서 ‘정직성 또는 성실성’ 덕목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고서는 학문의 창조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연구성과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확보하기 힘들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이다(김성수, 2008). 미국을 비롯한 구미의 대학들은 19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학문적 정직성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이 시험에서의 부정행위, 글쓰기에서의 표절 등 이른바 학문적 정직성을 위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세부지침(guideline)을 마련하여 이들을 교육하고 있다. 교육단체들은 글쓰기센터의 프로그램,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학생들이 학습활동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학문적 정직성’의 원칙과 세부 방침들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다. 대학의 표절문제를 근절하기 위하여 다양한 논문 표절 탐색시스템도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박수홍, 정주영, 2008; Batane, 2010). 대학교수를 비롯하여, 연구자, 학생들의 연구윤리 문제가 불거지자 대학 자체적으로 연구윤리규정을 만

들기도 하고, 일부 대학에서는 연구윤리에 저촉되는 경우 처벌규정까지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정책이나 제도는 학문적 정직성을 위한 윤리의식 확립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여전히 대학생들은 정확한 인용 방법이나 표절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한 윤리교육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도적인 잘못(deliberate wrongdoing)’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부주의에 의한 실수(lapse of inadvertence)’로 표절을 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김성수, 2008; Belter & Pre, 2009; Fischer & Zigmond, 2011). 이와 관련하여 대학생의 학문적 정직성 함양에 요구되는 연구윤리와 표절예방에 관한 교육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권재술, 손천택, 이성흠, 2011).

학문활동에서 준수해야 하는 연구의 정직성 및 연구진실성에 대한 강조는 교수, 연구원 등과 같은 전문연구자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연구윤리는 학문의 전당에 입문하는 대학생 또는 초보연구자 집단인 대학원생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다(최선경, 2009; Sponholz, 2000). 대학에서 학생들이 시험답안, 보고서, 논문 등에서 학문적 정직성을 위반하는 표절행위를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학생들은 스스로에 의한 학습결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연구결과를 정확한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자신의 성과물로 삼는 학문적 부정행위를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연구에 입문하는 초보연구자의 학문활동에서 요구되는 정직성과 관련하여, 학습윤리 교육(고전, 2009), 학습윤리와 관련된 실태 조사연구들이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하다(윤소정, 최용성, 양삼석, 최병학, 김희용, 2011; 이지연, 이상곤, 2008; 하병학, 2009). 대학생들이 과제수행을 위한 글쓰기에서 여기 저기서 가져온 글을 짜깁기하여 제출하는 보고서, 인터넷 논문 구매 사이트에서 구매하여 제출한 보고서가 적지 않고, 시험 부정행위, 협동학습에서의 무임승차 등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대책은 진지하게 논의되지 않고 있다. 교수 개인의 판단과 재량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교육하거나 처벌이 가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은 점점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제는 연구자뿐만 아니라 시작단계에 있는 예비연구자, 즉 대학생에게도 눈을 돌려 이들의 윤리의식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 마련이 요청되고 있다. 이들이 올바른 학습활동에 관한 윤리의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은 대학의 학문공동체는 물론 우리 사회의 정직성 담보를 위하여 꼭 필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학습윤리(學習倫理, academic integrity)는 학업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바람직한 덕목으로 대학생의 학업수행 과정에서 과제 및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인용 및 출처표시를 명확하

게 하여 자신의 글과 다른 사람의 글을 분명하게 밝히는 태도, 시험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 것, 협동학습의 과정에서 맡은 역할분담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포함된다. 비(非)학습윤리의 대표적인 예로는 시험부정행위(cheating), 보고서의 작성 및 연구활동에 있어서 인용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표절 등이다. 학습윤리는 교육기본법에서 ‘학습자의 윤리의식’ 혹은 ‘학습윤리’라는 표현으로 법정용어로 규정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학습윤리는 일반적으로 학문의 정직성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연구윤리’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과 지침은 교수 또는 대학원생을 포함한 연구자가 지켜야 할 것으로 대학생에게는 적용하기 어려운 면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기본적으로 연구윤리와 학습윤리를 상호교환적(interchangable)으로 사용하지만, 맥락에 따라서는 대학생의 학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시키기 위하여 ‘학습윤리’라는 용어를 선별적으로 사용한다(고전, 2009; 하병학, 2009).

대학생이 지켜야 할 학습윤리의 핵심 문제는 다름 아닌 대학생의 과제제출을 위한 글쓰기, 공동과제를 위한 협동과제 수행 등과 관련된다. 글쓰기는 학문연구의 기본적인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발표에서부터 과제물 제출, 학위논문 작성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생의 학습윤리와 관련하여 표절의 문제를 ‘글쓰기 교재’에서 주요 항목으로 다루고 있다(김성수, 2008; 신형기, 정희모, 김성수, 이강엽, 이재성, 김현주, 권명아, 백문임, 2007a). 특히, 연세대학교의 ‘글쓰기’ 교재에서는 ‘글쓰기 윤리’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글쓰기 과제의 수행에서 학생들이 지켜야 할 정직성 원칙을 비롯하여 부정확한 인용과 표절, 표절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 연구에서 윤리성에 대한 실제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신형기 외, 2007a).

또한 학문 분야에 따른 세부 영역별 글쓰기 가운데 하나인 ‘과학적 글쓰기’에서는 윤리의 문제, 즉 과학적 부정행위의 대표적 유형인 위조와 변조, 표절 등에 대하여 과학기술자들의 윤리적 자세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신형기, 정희모, 김성수, 이인재, 유현재, 김현주, 한경희, 박권수, 박진영, 2007b). 학술단체 및 연구자를 위한 윤리헌장(성평모, 김금순, 박찬구, 백희영, 윤선희, 전승준, 정병헌, 심환, 김운정, 2006)을 포함하여 대학기구 차원에서도 연구부정 또는 부적절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학생을 지도하고 있다. 서울대학교의 ‘연구진실성 위원회(2008)’에서는 연구 부정행위로서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연구계획, 연구과정, 결과 또는 기록 등을 적절한 인용 표시없이 도용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2011)의 ‘글쓰기 교실’에서는 ‘보고서 작성 요령’의 참고문헌 인용방법을 통하여 표절의

개념과 정의,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여 공정하게 사용하고 정확한 인용을 하고 표절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상에서 간략하게 살펴본 것과 같이 대학사회에서 학문적 정직성과 표절 예방과 관련된 실천은 중요하다. 이러한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여 이 연구는 대학생의 학습윤리 확립과 글쓰기에서 표절 예방을 위한 이론과 실천적 방안 마련을 위하여 대학생의 학습윤리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조사·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첫째, 학업수행에서 대학생의 학습윤리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실행도(준수정도)는 어떠한가? 둘째, 대학생의 학습윤리 교육을 위해 특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두 번째 연구문제에 대한 답변은 대학생의 학습윤리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실행도 간의 차이분석을 통해 도출될 것이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서울특별시 소재 K대학교에서 공과대학 학생을 위한 공학인증 강좌로 개설된 '공학작문 및 발표'를 수강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은 <표 1>에 요약된 것과 같이 1학년 14명(7.7%), 2학년 80명(43.7%), 3학년 59명(32.2%), 4학년 30명(16.4%)이고, 남학생 142명(77.6%), 여학생 41명(22.4%) 이었다. 연구대상의 전공은 신소재공학, 기계자동차공학, 건설시스템공학,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등이다.

<표 1> 연구대상

| 학 년 |            | 성 별 |             |
|-----|------------|-----|-------------|
| 1   | 14 (7.7%)  | 남   | 142 (77.6%) |
| 2   | 80 (43.7%) |     |             |
| 3   | 59 (32.2%) |     |             |
| 4   | 30 (16.4%) | 녀   | 41 (22.4%)  |
| 합 계 | 183 (100%) |     |             |
|     |            | 합 계 | 183 (100%)  |

## 2. 조사도구

대학생활에서 학문탐구의 시작, 과정, 결과 등에 적용되는 중요한 실천원리로서 ‘학습윤리’에 대한 대학생이 인식하는 특징을 조사하기 위하여 개발된 설문지는 고전(2009), 하병학(2009), 황성근(2008) 등이 이론적으로 고찰한 학습윤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종합하여 연구자에 의하여 개발되었다. 설문지는 <표 2>에 제시된 것과 같이 (1) 학업수행에서 과제물과 관련된 사항과 (2) 기타 학업수행과 관련된 사항(출석, 협동과제, 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13문항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학업수행 과정에서 학습윤리 위반의 경험이 있는 경우에 이유를 알아보는 선택문항이 추가되었다. 설문지 문항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교육심리, 교육평가, 교육공학을 전공하는 3인의 전문가로부터 내용타당도를 검토 받아, 이 결과에 따라서 일부 문항의 내용이 수정·보완되었다. 그리고 1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설문지의 지시문과 문항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표현이 명료하지 못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여 최종 문항으로 확정하였다. 학습윤리에 대한 응답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표 2> ‘학습윤리’ 실천원리에 대한 설문문항 요약

| 영역               | 문항 내용   |
|------------------|---|
| 학업수행에서 과제물 관련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아이디어 도용</b>: 다른 친구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li> <li>• <b>표절</b>: 인용되는 내용의 출처를 표기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li> <li>• <b>변조</b>: 보고서에 포함된 사실을 왜곡해서 기술하거나 자료(data)를 조작하는 행위</li> <li>• <b>위조</b>: 실험(관찰, 조사 등)에서 얻은 결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결과를 만들어 보고·제출하는 행위</li> <li>• <b>짜깁기</b>: 인터넷 등에서 자료를 짜깁기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li> <li>• <b>과제물 구매</b>: 과제물을 직접 작성하지 않고, 인터넷 과제물 판매 사이트에서 구매한 것을 그대로 제출</li> <li>• <b>중복제출</b>: 다른 수업에서 이미 제출하였던 과제물을 마치 새로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는 행위</li> <li>• <b>대리작성</b>: 다른 사람에게 과제 작성을 부탁하여 제출</li> </ul> |
| 학습윤리 준수위반 이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업과정에서 도덕성 결여</li> <li>• 주제에 대한 자신감 결여</li> <li>• 더 좋은 학점에 대한 욕심</li> <li>• 시간의 부족</li> <li>• 학습윤리(표절) 관련 교육소홀</li> <li>• 자료에 대한 쉬운 접근성</li> <li>• 학습윤리(표절) 인식 부족</li> <li>• 학교(교수 포함)의 관리 소홀</li> </ul>   |
| 기타 학업수행 관련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대리출석</b>: 친구의 부탁으로 대신하여 수업에 출석</li> <li>• <b>무단조퇴</b>: 출석 확인 후 교(강)사 모르게 수업에서 무단으로 조퇴</li> <li>• <b>무임승차</b>: 조(팀)별 활동(실험 포함)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고도 다른 학생과 똑같이 이름을 올림</li> <li>• <b>시험부정 행위</b>: 시험에서 부정행위(준비된 답안, 다른 사람의 답안 보기 등을 통한 답안 작성·제출</li> <li>• <b>대리시험</b>: 친구의 부탁으로 대신하여 시험 답안 작성·제출</li> </ul>   |

### 3. 자료수집 및 분석

‘공학작문 및 발표’를 수강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2011학년도 제1학기 강좌 종료 1주일 전(6월 7일에서 10일) 수업시간에 수업 담당자가 대면하여 직접 배부한 다음 현장에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설문작성에는 1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사회과학통계프로그램인 IBM SPSS Statistics 버전 19.0을 사용하여 문항별 중요도와 실행도 평균과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였다. 점수를 채점하는 과정에서 실행도는 역으로 채점하여 준수 위반경험이 많을수록 낮은 점수를 적을수록 높은 점수를 배정하였다. 다음으로 ‘학습윤리’에 대한 각 문항별로 중요도와 실행도 점수의 차이에 따라서 순위를 정하고 이들의 통계적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응답결과를 가지고 분석한 설문지의 내적일관성 계수(Cronbach  $\alpha$ )는 중요도가 .90이고 실행도가 .79로 나타났다.

### 4. 중요도-실행도 분석

중요도-실행도 분석(Important-Performance Analysis: IPA)은 Martilla와 James(1977)가 자동차산업에서 소비자의 의견조사 결과를 경영진단의 기법으로 제안·사용된 후, 관광, 마케팅, 식품, 스포츠심리학, 복지 분야를 포함하여 교육연구에서도 사용되고 있다(이성흠, 이준, 2010; Oh, 2001; Siniscalchi, Beale, & Fortuna, 2008). IPA는 특정 대상에 대하여 이용자가 각 평가요인에 대하여 항목별로 어떤 요인을 중요하게 인식하는가를 평가하여 개별 속성에 대한 ‘중요도’를 측정하고 난 다음, 개별 평가 항목에 대한 실제 ‘실행도’를 측정하여 동시에 비교·분석하는 기법이다. 이 연구에서는 실행도를 ‘학습윤리’를 지키는 ‘준수정도’로 용어를 바꾸어 사용하였다. IPA는 중요도와 실행도(또는 만족도, 경험도, 준수정도 등)의 속성별 비교평가 값에 의하여 2차원 도표로 표시하고, 그 위치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위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으로서 [그림 1]에 제시된 것과 같이 우선순위 항목을 도출하는 유용성을 가지는 방법이다. 이 기법은 정해진 인력과 예산으로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사항을 결정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노력이 집중될 분야로부터 과잉 투자된 분야까지 주어진 자료들의 평균을 이용하여 빠르고 쉽게 의사결정을 하는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이성흠, 이준, 2010; Martilla & James, 1977).



|            |             |   |   |
|------------|-------------|---|---|
| 중요도        | 고<br>(high) | II사분면: 약점 항목<br>집중관리 필요<br>(Concentrate Here)         | I사분면: 강점 항목<br>좋은 성과 유지<br>(Keep up the Good Work)      |
|            | 저<br>(Low)  | III사분면: 낮은 우선순위 항목<br>낮은 중요도와 우선 순위<br>(Low Priority) | IV사분면: 불필요한 강점 항목<br>투자 및 집중도 조절<br>(Possible Overkill) |
|            |             | 저(low)  | 고(high)   |
| 실행도 (준수정도) |             |   |   |

[그림 1] 중요도-실행도의 사분면의 속성

### III. 연구결과 및 논의

#### 1. 학업수행에서 과제물 관련 사항

대학생의 학업수행 과정에서 제출하는 과제물 관련 사항과 관련된 학습윤리의 중요도와 학생의 실행도에 관한 인식은 <표 3>과 같다. 대학생들은 ‘학습윤리’를 위반하지 않는, 즉 학습윤리 준수의 중요성과 관련하여서는 대리작성, 아이디어 도용, 과제물 구매, 위조, 변조, 표절의 순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었지만, 중복제출과 짜깁기의 항목에서 중요성 인식의 정도는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학업과정에서 이들 학습윤리에 대한 실행도, 즉 준수정도에서는 대리작성, 중복제출, 과제물 구매 등에서 위반하지 않는, 즉 학습윤리 준수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짜깁기와 표절 항목에서는 상대적으로 준수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수행에서 과제물 작성과 관련된 중요도와 실행도 차이는 .07~.63점 범위로 나타났으며, 순위는 <표 3>에 제시된 것과 같으며, 이들 점수 차이는 중복제출, 짜깁기, 과제물 구매, 표절, 대리작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다음으로 학업수행 과정에서 과제물 제출과 관련하여 학습윤리를 한번이라도 준수하지 않은, 즉 위반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윤리를 위반한 이유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나타난 것과 같이 ‘학습윤리’ 위반에 대한 이유는 ‘더 좋은 학점에 대한 욕심’, ‘시간의 부족’, ‘자료에 대한 쉬운 접근성’으로 응답하고 있다. 응답 가운데 ‘학업과정에서 도덕성 결여’와 ‘학교(교수 포함)의 관리 소홀’의 항목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lt;표 3&gt; '과제물' 관련 사항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 점수 및 t검증 결과

| 항 목          | 사례수(n) | 중요도  |      | 실행도  |      | t       |
|--------------|--------|------|------|------|------|---------|
|              |        | M    | SD   | M    | SD   |         |
| (R1) 중복제출    | 183    | 3.86 | 1.08 | 4.49 | .84  | 7.26*** |
| (R2) 짜깁기     | 183    | 3.72 | 1.05 | 3.11 | 1.15 | 6.44*** |
| (R3) 과제물 구매  | 183    | 4.36 | .92  | 4.74 | .68  | 4.97*** |
| (R4) 표절      | 183    | 4.25 | .80  | 3.92 | .97  | 4.05*** |
| (R5) 대리작성    | 183    | 4.48 | .80  | 4.76 | .69  | 3.89*** |
| (R6) 위조      | 183    | 4.30 | .83  | 4.20 | .89  | 1.19    |
| (R7) 변조      | 183    | 4.29 | .84  | 4.22 | .86  | .81     |
| (R8) 아이디어 도용 | 183    | 4.39 | .82  | 4.42 | .80  | .30     |

\*\*\* p &lt; .001

&lt;표 4&gt; '학업수행에서 과제물' 관련사항에서 경험도(준수 위반)에 대한 이유

| 항 목               | 사례수(n) | 백분율(%) |
|-------------------|--------|--------|
| •더 좋은 학점에 대한 욕심   | 64     | 35.0   |
| •시간의 부족           | 60     | 32.8   |
| •자료에 대한 쉬운 접근성    | 55     | 30.1   |
| •학습윤리(표절) 인식 부족   | 22     | 12.0   |
| •주제에 대한 자신감 결여    | 19     | 10.4   |
| •학습윤리(표절) 관련 교육소홀 | 10     | 5.5    |
| •학교(교수 포함)의 관리 소홀 | 7      | 3.8    |
| •학업과정에서 도덕성 결여    | 4      | 2.2    |

이들 결과는 비슷한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그러나 학습윤리 실태 조사와 관련된 하병학(2009)의 연구에서 C대학교 학생들이 학습윤리에 대한 인식의 정도와 전체 항목에서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학습윤리 가운데 표절과 관련한 대학생의 조사연구(이지연, 이상근, 2008)에서 올바른 인용방법에 대한 학습기회의 부족과 과제에 대한 자신감 부족으로 많은 학생이 디지털 정보원으로부터 자료를 짜깁기하여 제출하는 학습윤리 위반의 응답과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이들 결과는 대학생을 위한 학습윤리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강좌(예: 글쓰기, 학습(연구)윤리 등)에서 과제수행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적절한 인용법을 교육함으로써 표절 문제를 예방하고, 향후 연구자로서 갖추어야 할 연구윤리 확립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2. 기타 학업수행과 관련된 사항

대학생이 대학생활에서 경험하는 기타 학업사항, 즉 출석, 협동과제, 시험 등과 관련되는 학업수행에서 지켜야 하는 학습윤리와 관련된 응답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 나타난 것과 같이 기타 학업수행과 관련된 학습윤리의 중요도는 대리시험, 시험부정행위, 무임승차는 높게 나타났다지만, 대리출석과 무단조퇴의 중요도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행도에서도 대리시험, 시험부정 행위, 무임승차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어 중요도와 일치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리출석과 무단조퇴 준수의 문항에서는 중요도에서 인식의 정도가 낮은 것과 같이 비교적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기타 학업수행’과 관련된 중요도와 경험도 차이는 .09~.27점 범위로 나타났으며, 순위는 <표 5>에 제시된 것과 같으며, 이들 점수 차이는 대리출석, 무단조퇴, 대리시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표 5> ‘기타 학업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중요도와 경험도 점수 및 t검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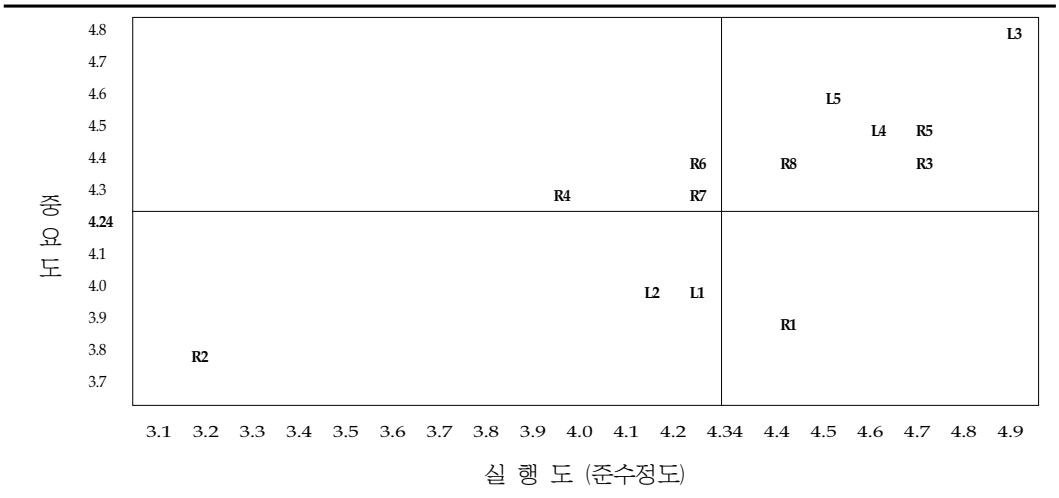
| 항 목          | 사례수(n) | 중요도  |      | 경험도  |      | t       |
|--------------|--------|------|------|------|------|---------|
|              |        | M    | SD   | M    | SD   |         |
| (L1) 대리출석    | 183    | 3.93 | 1.15 | 4.20 | 1.10 | 2.71**  |
| (L2) 무단조퇴    | 183    | 3.92 | 1.08 | 4.17 | 1.02 | 2.72**  |
| (L3) 대리시험    | 183    | 4.75 | .69  | 4.95 | .27  | 3.71*** |
| (L4) 무임승차    | 183    | 4.50 | .80  | 4.46 | .77  | 1.80    |
| (L5) 시험부정 행위 | 183    | 4.69 | .75  | 4.60 | .72  | 1.38    |

\*\* p < .01      \*\*\* p < .001

이들 결과도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그러나 이들 결과는 앞에서 언급한 하병학(2009)의 연구에서 C대학교 학생들이 기타 학업수행과 관련된 학습윤리 위반에 대한 응답 결과와 전체 항목에서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 5>에 요약된 것과 같이 대리시험, 시험부정, 무임승차 행위 항목에서 중요도의 인식 정도가 비교적 높고, 학습윤리 준수의 정도에서도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은 대학생의 학습윤리 정착과 관련하여 바람직하지만, 대리출석과 무단조퇴에서 중요도 인식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준수정도에서도 다른 문항에 비하여 비교적 낮은 준수정도를 나타내는 것은 이들과 관련된 학습윤리 위반의 정도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이와 관련된 학습윤리 확립과 예방 조치로서 학칙에 관련 조항을 명시하고 학기별 강좌 시작단계에서 이들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예방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또한 대학에서 실시하는 전자출석 장치 마련은 이들과 관련된 학습윤리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3. 중요도-실행도 분석 종합

대학생의 학업과정에서 ‘학습윤리’를 교육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하여 가장 관심을 가지고 개선 노력이 필요한 분야를 도출하기 위하여 중요도-실행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학습윤리’에 준수의 중요도(y축) 전체 평균 4.26점과 실행도(x축) 전체 평균 4.34점을 기준(x, y 축 교차점)으로 1사분면(강점 항목)에 6개, 2사분면(약점 항목)에 3개, 3사분면(낮은 우선 순위 항목)에 3개, 4사분면(불필요한 강점 항목)에 1개의 특성이 분포되었다. 중요도-실행도 분석에서 나타난 특성들의 구체적인 요약은 <표 6>과 같다. [그림 2]와 <표 6>에서 보는 것과 같이 중요도는 높으나 실행도가 낮은 약점 특징으로서 대학생의 ‘학습윤리’ 확립을 위하여 집중관리가 필요한 항목은 ‘표절’, ‘위조’, ‘변조’로 나타났다. 중요도와 실행도가 모두 높아 바람직한 ‘학습윤리’ 확립에 도움이 되는 강점 특징으로는 ‘과제물 구매, 대리작성, 아이디어 도용’과 ‘대리시험, 무임승차, 시험부정 행위’의 항목에서 중요도의 인식과 준수정도가 높게 나타난 항목이 포함되었다. 중요도와 실행도의 인식 수준이 모두 낮은 우선순위 특징으로는 짜깁기를 포함하여 대리출석, 무단조퇴 문항이다. 마지막으로 중요도는 낮지만 실행도는 비교적 높은 투자 및 집중도 조절이 필요한 불필요한 강점 특징에는 중복제출이 포함되었다.



[그림 2] ‘학습윤리’에 대한 학생의 중요도-실행도 인식 분석

<표 6> ‘학습윤리’ 항목의 중요도-실행도 분석 결과

| 구 분        | 학업수행 사항                | 학습윤리 항목                                  |
|------------|------------------------|--|
| 강점 항목      | 과제물                    | (R3) 과제물 구매<br>(R5) 대리작성<br>(R8) 아이디어 도용 |
|            | 기타<br>(출석, 협동과제, 시험 등) | (L3) 대리시험<br>(L4) 무임승차<br>(L5) 시험부정 행위   |
| 약점 항목      | 과제물                    | (R4) 표절<br>(R6) 위조<br>(R7) 변조            |
| 낮은 우선순위 항목 | 과제물                    | (R2) 짜깁기                                 |
|            | 기타<br>(출석, 협동과제, 시험 등) | (L1) 대리출석<br>(L2) 무단조퇴                   |
| 불필요한 강점 항목 | 과제물                    | (R1) 중복제출                                |

‘학습윤리’에 대한 중요도-실행도 분석에서 약점 특징으로 나타난 ‘표절’, ‘위조’, ‘변조’를 예방하기 위한 대학차원의 다양한 이론연구에 기초한 교수·학습과정에서 실천이 요구된다. 예컨대, 시대정신으로 부각되고 있는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학교차원에서 적절한 기구(예: 연구진 실성위원회)를 통하여 규정을 마련하고,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강좌와 교재를 마련하여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과정의 설계·개발·활용에는 보고서 작성을 포함한 학습과정에서 표절, 위조, 변조 등과 관련되는 내용을 포함하여, 전문연구자가 준수하여야 할 전공 영역별 윤리와 관련되는 내용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우리나라에서 시도되고 있는 공학교육인증제 운영에서 공학윤리 교육을 위한 연구윤리 콘텐츠와 학습활동관리 시스템 개발·운영은 대학생들의 학습윤리 강화에 많은 도움이 예상된다(손화철, 송성수, 2007; 이종기, 박노을, 2009). 또한 연구윤리에 대한 국내·외 교육과정에 포함된 내용, 교육방법, 운영실태 등에 대한 심층조사(이소이, 김태훈, 노태천, 김춘길, 2005)를 통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설계와 대학당국에서 이와 관련된 기반조성과 정책적 관심을 유도하는 노력은 대학생의 학습윤리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IV. 요약 및 결론

학문공동체에서 학문적 정직성과 연구윤리는 연구자가 책임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준수해야 하는 기본 전제이다. 그러나 대학에서 학생들은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글을 자신의 것처럼 복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 적지 않고 인터넷에서 보고서를 구매하여 제출하기도 한다. 학문 활동에서 연구의 정직성, 연구진실성에 대한 강조는 교수를 포함한 연구원과 같은 전문연구자들이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연구윤리는 학문의 전당에 입문하는 대학생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이 연구는 대학생이 보고서 작성에서 적절한 인용을 포함한 학습윤리 신장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학생의 학습윤리에 관한 인식을 조사·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기초로 결론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은 보고서 작성에서 대리작성, 아이디어 도용, 과제물 구매, 위조, 변조, 표절의 순으로 준수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지만, 중복제출과 짜깁기의 항목에서 중요성 인식의 정도는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학습윤리에 대한 준수 정도에서는 대리작성, 중복제출, 과제물 구매 등에서는 준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짜깁기와 표절 항목에서는 상대적으로 준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이유는 비교적 명료하다. 짜깁기와 표절은 그 동안 대학생들이 관행적으로 아무 죄의식 없이 행해왔던 학습윤리 위반행위이며, 이들 스스로도 정확히 어디까지가 표절이고 어디까지가 정당한 인용인가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알면서 의도적으로 위반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가운데 표절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다. 표절의 정확한 의미와 정당한 참고자료 인용방식을 대학원에 와서야 알게 되는 현 상황에서 볼 때, 대학생을 대상으로 표절이나 학습윤리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짜깁기의 경우 중요도 인식도 낮고 준수 정도도 낮아 짜깁기의 비(非)윤리성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네이버나 기타 인터넷 지식 검색도구를 통한 자료의 접근가능성, 자료 사용의 용이성, 필요한 자료의 선취 등이 짜깁기 행위를 부추기는 주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중복제출의 중요도 인식이 낮게 나타난 결과도 유사한 교과목에서 요구되는 유사한 주제의 과제라면 중복제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반영한다. 중복제출의 준수 정도가 높게 나타난 점은 아마도 이러한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중복제출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한다. 반면, 과제물 구매나 대리작성은 다른 행위에 비해 비윤리적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이에 따라 준수 정도도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중요도와 실행도 점수 차이는 중복제출(중요도 낮음, 실행도 높음), 짜깁기(중요도 낮음, 실행

도 낮음), 과제물 구매(중요도 높음, 실행도 높음), 표절(중요도 높음, 실행도 낮음), 대리작성(중요도 높음, 실행도 높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비교적 비윤리적이라는 인식이 강한 과제물 구매나 대리작성의 경우, 준수 정도가 중요도 인식보다도 더 높은 점이다. 실제 이러한 행위를 할 기회가 없어서 준수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을 수도 있지만, 이 항목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윤리의식에 버금가는 준수 태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중요도 인식은 낮는데 준수 정도는 높게 나타난 중복제출은 기회가 생기면 얼마든지 중복제출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식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비교적 중요도 인식이 높게 나타난 표절의 경우 준수 정도는 이에 비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정확한 표절의 의미, 표절방지 방안, 정당한 인용방식에 대한 교육으로 실행 수준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학습윤리’ 위반에 대한 이유는 ‘더 좋은 학점에 대한 욕심’, ‘시간의 부족’, ‘자료에 대한 쉬운 접근성’ 순으로 나타났다. 결국, 학점이나 상대평가를 통한 경쟁유발이 학습자의 표절행위를 부추기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점수따기’보다는 학습내용에 대한 이해나 숙달, 사고력이나 문제해결력의 계발, 협동을 통한 과제 수행 등을 강조하는 학습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기타 학업수행(출석, 협동과제, 시험 등) 측면에서 학습윤리의 중요도는 대리시험, 시험 부정행위, 무임승차는 높게 나타났지만, 대리출석과 무단조퇴의 중요도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실행도에서도 대리시험, 시험부정 행위, 무임승차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고 대리출석과 무단조퇴에서는 비교적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어 중요도에 대한 인식과 일치하였다. 중요도와 실행도(준수 정도)의 점수 차이는 대리출석, 무단조퇴, 대리시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대리출석이나 무단조퇴의 경우 중요도 인식은 낮지만 실행 정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은 역시 학점관리와 관련이 있는 듯하다. 점수나 페널티의 차원이 아닌 윤리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라는 점을 인식시키고 내면화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학습윤리의 중요성과 실행도의 차이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요도는 높으나 실행도가 낮은 약점 항목으로서, 대학생의 ‘학습윤리’ 확립을 위하여 집중관리가 필요한 항목은 ‘표절’, ‘위조’, ‘변조’로 나타났다. 중요도와 실행도가 모두 높아 바람직한 ‘학습윤리’ 확립에 도움이 되는 강점 특징으로는 ‘과제물 구매, 대리작성, 아이디어 도용’과 ‘대리시험, 무임승차, 시험부정 행위’의 항목으로 나타났다. 중요도와 실행도의 인식 수준이 모두 낮은 우선순위 특징으로는 짜깁기를 포함하여 대리출석, 무단조퇴 문항이다. 중요도는 낮지만 실행도는 비교적 높은 투자 및 집중도 조절이 필요한 불필요한 강점 특징에는 중복제출이 포함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대학생을 위한 학습윤리의 확립이 필요하며, 확립방

안은 다양한 측면에서 강구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이 연구에서 '학습윤리'에 대한 중요도-실행도 분석에서 약점 특징으로 나타난 표절, 위조, 변조와 관련된 학습윤리 준수를 위한 대학문화 정착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학습윤리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과제물 제출에서 표절과 관련되는 사항이다(이지연, 이상근, 2008; 하병학, 2009). 대학생들은 과제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대부분 인터넷 자료를 활용하게 되며, 적절한 인용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학습윤리'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대학생의 학습윤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대학의 규정은 윤리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학생의 내면에서 발현되어야 하는 연구윤리 의식을 고취하기에는 미흡하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학생에게 바람직한 학문태도를 내면세계에서 체화하는 교육과정 구성과 교육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기관 주도로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윤리 교육과정 개발(김도균, 백희영, 권석만, 강경성, 임정목, 이건수, 박중신, 김옥주, 서이중, 조덕재, 장석만, 조진호, 김나래, 2007)과 많은 대학이 교양교육원에서 계열별 연구윤리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운영(윤소정 외, 2011)을 비롯하여 대학생의 창의적 글쓰기 관련 강좌를 설계, 개발, 운영하는 것은 대학생의 표절을 포함한 위조와 변조 등과 관련된 학습(연구)윤리 확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고전 (2009). 대학의 학습윤리 관련 규정 및 교육 개선 방안. **교육법학연구**, 21(2), 1-25.
- 과학기술부 (2007). **실천연구윤리**. 서울: 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2008). **연구윤리를 위한 지침**(제정 2007. 2. 8. 과학기술부 훈령 제236호와 개정 2008. 7. 28.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73호),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제1항 제3호.
- 권재술, 손천택, 이성흠 (2011). **학문적 글쓰기의 이해**. 과주, 경기: 교육과학사.
- 김도균, 백희영, 권석만, 강경성, 임정묵, 이건수, 박중신, 김옥주, 서이종, 조덕재, 장석만, 조진호, 김나래 (2007).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윤리 교육과정 개발**. 서울: 한국학술진흥재단.
- 김성수 (2008). 미국 대학의 ‘학문적 정직성’ 정책에 대한 연구. **작문연구**, 6, 192-226.
- 네이버 백과사전 (2011) 표제어: **표절**. (<http://100.naver.com/100.nhn?docid=885190>)에서 2011. 05. 16. 검색.
- 박수홍, 정주영 (2008). 대학교육에서의 연구윤리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탐색적 연구: DEVAC 과제표절탐색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국정보교육학회**, 12(2), 183-194.
-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 교실 (2011). **글쓰기 길잡이**. (<http://writing.snu.ac.kr/guide/advice01.htm>)에서 2011. 05. 16. 검색.
- 서울대학교 진실성위원회 (2008)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제2조 1항 다 규정, 2008. 2. 19. 개정). 서울: 서울대학교.
- 손화철, 송성수 (2007). 공학윤리와 전문직 교육: 미시적 접근에서 거시적 접근으로. **철학**, 91, 305-331.
- 성광모, 김금순, 박찬구, 백희영, 윤선희, 전승준, 정병헌, 심환, 김윤정 (2006). **학술단체 및 연구자를 위한 윤리현장 제정 및 연구 도덕성 제고 방안 연구**. 서울: 한국학술진흥재단.
- 신형기, 정희모, 김성수, 이강엽, 이재성, 김현주, 권명아, 백문임 (2007a). **글쓰기**.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신형기, 정희모, 김성수, 이재성, 유현재, 김현주, 한경희, 박권수, 박진영 (2007b). **모든 사람을 위한 과학 글쓰기: 정확하게 명쾌하게 간결하게**. 서울: 사이언스 북스.
- 위키백과 (2011). 표제어: **표절**. (<http://ko.wikipedia.org/wiki/%ED%91%9C%EC%A0%88>)에서 2011. 05. 16. 검색.
- 윤소정, 최용성, 양삼석, 최병학, 김희용 (2011). 계열별 대학생의 연구윤리의식 차이. **윤리연구**, 81, 155-177.

- 이성흠, 이준 (2010). '좋은 체육수업' 에 대한 중등학교 체육교사의 인식: 중요도-실행도 차이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교원교육연구**, 27(4), 319-343.
- 이소이, 김태훈, 노태천, 김춘길 (2005). 공과대학의 공학윤리 교육과정 운영 실태 조사. **공학교육연구**, 8(2), 35-51.
- 이인재 (2007).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인용과 표절의 이해. **윤리연구**, 66, 1-25.
- 이인재 (2008). 대학에서 글쓰기 윤리교육. **작문연구**, 6, 129-159.
- 이종기, 박노을 (2009). 연구윤리 교육 콘텐츠 준비와 학습활동관리시스템 개발과 운영. **한국산업경영학회 2009년 하계통합학술대회 논문집**, 1-19.
- 이지연, 이상근 (2008). 과제표절과 관련된 대학생의 디지털 정보원 활용 현황에 관한 조사연구. **열린교육연구**, 16(3), 103-121.
- 최선경 (2009). 대학생 글쓰기윤리 의식 고취를 위한 실천적 교육방안. **수사학**, 10, 299-321.
- 하병학 (2009). 탐구와 소통의 학문하기와 학습윤리교육. **사고와 표현**, 2(1), 7-33.
- 황성근 (2008). 대학생의 글쓰기 윤리와 표절 문제. **사고와 표현**, 1(1), 231-265.
- Batane, T. (2010). Turning to Turnitin to fight plagiarism among university students. *Educational Technology & Society*, 12(2), 1-12.
- Belter, R. W., & Pre, A. (2009). A strategy to reduce plagiarism in an undergraduate course. *Teaching of Psychology*, 36, 257-261.
- Bruwelheide, J. H. (2010). Plagiarism: Trends, thoughts, suggestions. *TechTrends*, 54(5), 22-24.
- Fischer, B. A., & Zigmond, M. J. (2011). Educational approaches for discouraging plagiarism. *Urologic Oncology: Seminars and Investigations*, 29, 100-103.
- Lipson, C. (2004). *Doing honest work in college: How to prepare citations, avoid plagiarism, and achieve real academic success*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김형주, 이정아 (공역)(2008). **정직한 글쓰기**. 서울: 멘트로.
- Lipson, C. (2008). *Doing honest work in college: How to prepare citations, avoid plagiarism, and achieve real academic success* (2nd ed.).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artilla, F., & James, F. C. (1977).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for developing effective marketing strategies. *Journal of Marketing*, 41(1), 77-79.
- Oh, H. (2001). Revisiting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Tourism Management*, 22, 617-627.
- PlagiarismdotORG (2011). Types of plagiarism. Retrieved from [http://www.plagiarism.org/plag\\_article\\_types\\_of\\_plagiarism.html/](http://www.plagiarism.org/plag_article_types_of_plagiarism.html/) on May. 16, 2011.
- Siniscalchi, J. M., Beale, E. K., & Fortuna, A. (2008). Using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to evaluate training. *Performance Improvement*, 47(10), 30-35.

Sponholz, G. (2000). Teaching scientific integrity and research ethics. *Forensic Science International*, 113, 511-514.

\* 논문접수 2011년 10월 31일 / 1차 심사 2011년 11월 29일 / 게재승인 2011년 12월 16일

\* 이성흠(李聖欽, Lee, Sung Heum): 미국 Indiana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공학 전공으로 철학박사(Ph.D.)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외래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 저서로는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의사소통, 교수설계, 그리고 매체활용”, “학문적 글쓰기의 이해(공저)” 등이 있다.

\* E-mail : suhleel7@hanmail.net

\* 윤초희(尹焦熙, Yoon, Cho-Hee): 미국 Washington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심리 전공으로 철학박사(Ph.D.)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동국대학교(서울)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저·역서로는 “사고와 언어(L. S. 비고츠키[저]/A. 코즐린[편집])” 등이 있다.

\* E-mail : chyoon@dongguk.edu

\* 최상봉(崔相鳳, Choi, Sang Bong): 미국 Spalding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행정 전공으로 교육학박사(Ed.D.)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박사후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E-mail : choisangbong@yahoo.com

## Abstract

##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on College Students' Conceptions of Academic Ethics

Lee, Sung Heum\*

Yoon, Cho-Hee\*\*

Choi, Sang Bong\*\*\*

Nowadays 'academic honesty/academic integrity' becomes an important issue in the research community. The issue of 'academic ethics' is particularly relevant to college students.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analyze college students' conceptions of 'academic ethics'. For this purpose, one hundred eighty-three (142 males and 41 female) college students were recruited from K University in Seoul. The survey instrument used for the study consisted of thirteen questions regarding academic ethic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ollege students reported high importance in compliance with the items of agency creating, idea stealing, and homework buying, but they reported lower importance on the items of weaves in writing and duplicate submission. Second, students also reported high importance in compliance with the items of surrogate test, test cheating, and free riding in homeworks, but they reported lower importance on the items of valet attendance and unauthorized leaving early. For the items of performance, compliance scores showed a similar trend. Lastly, the results of the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showed that the items of academic ethics in the 'concentrate' area were 'plagiarism', 'fake', and 'modulation', respectively. In conclusion, plagiarism as a violation of academic ethics may occur when students don't know how to appropriately quote from resources. In order to establish 'academic ethics' code for college students in university, we should design, develop, and implement appropriate courses such as 'research ethics,' 'academic writing,' etc.

Key words : academic ethics, college students' conceptions,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plagiarism

---

\* Lectur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Corresponding Author, Assistant Professor, Dongguk University (Seoul Campus)

\*\*\* Post Doc. Researcher, Spalding University